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7.23(목) 오전 8시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담당과장	배준형 과장(044-203-5920)	담 당 자	차세운 서기관(044-203-592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 전개

- 총 100개국 이상 제네바 대표부 상대로 지지 요청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13(월)-22(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진행하여,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서 유 본부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함

○ 각국 제네바 주재 대사를 상대로 한 이번 지지 교섭 활동은 7.16(목) 세계무역기구 특별일반이사회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 발표를 전후로 추진됨

□ 유 본부장은 총 8명의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세계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지식을 축적해왔으며,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해온 만큼,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직을 수임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함

□ 다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유 본부장의 정견발표 내용과 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를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특히, 사무총장으로서 164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 본부장이 적합한 후보라는 반응을 보임

○ 또한 아시아 출신 여성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인 점에 주목하면서, 이 점이 유 본부장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음

□ 상당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유 본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고, 유 본부장의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서의 비전과 주요 세계무역기구 현안별 입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관심을 표명함

○ 이들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한 유 본부장의 입장을 집중 문의하였으며, 유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유 본부장은 제네바에서의 지지 교섭활동과 병행하여, 통상장관들과도 화상 또는 유선 협의를 통해 장관급 차원의 지지 요청 활동도 이어감

□ 당분간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유세 기간이 계속되며, 9.7(월)부터 후보를 줄여나가기 위한 회원국간 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9.7(월) 이후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절차는 일반이사회 의장(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대사)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차세운 서기관(☎ 044-203-5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